#### 하루를 시작하며



좌 정 묵 시인·문학평론가

코로나사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삶의 양식을 흔들어대 고 있다.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최소 10년은 이어진다며 호흡 기감염병에 대해 다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. 그러나 발생 초기의 위 기의식과는 달리 지금은 변이바이러 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 이 일상에서 무뎌지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.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통과 질환보다 대선 후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답답함이나 분통이 정신과 육체를 병 사유하기 때문이다. 다시 말해 무의

# 공중보건의 척도 하나는

공중보건의 관점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환경위생, 전염병 관리,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경 각심을 가지게 됐고 환경보건과 예 방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실체적 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. 그런데 서로 상반되거나 예측 이 되지 못한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 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더불어 삶은 위축되고 말았다. 호흡기감염병 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떠도는 말과 정보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. 앞으로 심인성(心因性) 질환을 더 걱정해야 하는지도 모른다.

지그문트 프로이트(Sigmund Freud, 1856~1939)에 의하면 무의식 도 언어로 구성됐다. 인간은 언어로

들게 할 것만 같다. 이것은 폭력이다. 식은 사회 밖에 있는 게 아니다. 인 간은 직면하기 두려운 현실, 부정적 감정을 무의식에 집어넣게 된다. 이 는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기도 하지만 너무 깊숙한 곳에 있 으면 꺼내기 어렵고 방어기제만 남는 공격적인 사람이 된다. 타인에게 지 나치게 관심이 많고 통제하려 들거나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능한 사람 은 자기 무의식에 문제가 있는 이들 이다. 무의식은 인격의 핵심이다.

>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통증으로 나타나는 신체화증상(somatization) 은 흔한 일이다. 일상생활이 힘들 정 도로 아픈데 병원에서의 신체적 진 단은 '정상'이라고 한다. 심리적 요 인을 제거했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.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따로 있지 않 기에, 심인성은 치명적인 원인일 수 있다. 질병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 그 본질은 소통이라고 믿고 싶다.

하지 않은 상태(dis-ease)를 말한 다. 분노, 답답함으로 미칠 것 같을 때, 우리는 흔히 '암에 걸릴 것 같 다'고 토로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. 흔히 스트 레스가 병이 된다는 말과 닿아있다.

코로나와 함께 정보의 범람에 대응 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피로하고 위축 될 수밖에 없다. 그 많은 정보들을 걸러낼 '체'를 자신에 맞게 갖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. 언어에는 '얼'이 들어있다고 하므로 말에는 말 하는 이의 지적 수준이나 정신이 반 영된다고 해야 한다. 말이 산소보다 많이 생산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 중보건의 한 척도로 말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키트도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. 그러나, 말은 강자나 약자 에게 언제나 무기가 되기는 하겠지만

## 사설

##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언제까지 다툴건가

새해 벽두부터 교육의원 폐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. 교육 의원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 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. 논란의 골자는 두가지 다.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발 의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훼 손됐다는 지적이다. 반면 과거부 터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논의 가 여러차례 있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.

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 원(서울 강동구을)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이 의 원은 "지방분권특별법에는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돼 있다"며 "자치분권 측면에서 (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는 건) 오히려 퇴행적"이라고 꼬집었 다. 이해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밀실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. 법안 발의 과 제도로 입씨름을 할 것인가.

정에서 도민의견을 듣는 공식적 인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이 유로 들었다.

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우려된다. 알다시피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제도다.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 로 치러졌지만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. 제주는 제주특 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. 어떤 제도든 장·단점이 있게 마 련이다.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출마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서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 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 되면서 도민의 주권도 박탈당했 다. 그렇다면 이참에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. 언제까지 교육의원

#### 열린마당

#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자



한 정 민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

교외 지역은 소방시설이 부실하기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.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 예 방이 매우 중요한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사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.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.

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 래, 소화용수 등을 준비해야 한다. 고, 벽, 바닥, 천장과 접촉하는 부분 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야 하며.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콘크리트 등과 같은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.

둘째,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.

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.

셋째, 화목보일러는 산소가 부족 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워 불완전 연소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 가스이므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연 결부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 화목

넷째,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남 은 재의 열을 확실히 식혀서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.

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 는 가정에서는 초기진화 및 대피를 첫째,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, 소화기, 모

> 추운 겨울 난방기구 사용 시 주 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 요건이다.

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, 안전하고

※ '오피니언'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### 뉴스-in

### "교육의원 제도, 폐지 능사 아니다"

교원·학부모단체 등 목소리

○…교육의원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원·학부모단체 등 교육 계 일각에서도 목소리

제주교사노동조합, 제주교육희망 네트워크,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 크,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에 따른 공동 성명서를 통해 "공식적인 도민 의견 수렴 없는 '교육의원 제도' 폐지 국회 게 훼손한 정치 공학적 행보"라 고 비판.

이들은 "지금까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은 무겁게 받아 들인다"면서도 "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합리 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한다"고 역설. 오은지기자 전지훈련 숙소 등 집중점검

○…서귀포시가 최근 20여개 종 목・202팀・8840여명 규모의 동계 전지훈련팀이 쇄도하고 있는 가 운데 훈련팀 숙박업소 28곳과 이 용음식점 43곳 등에 대한 위생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, 검 및 식품취급성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.

시는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 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계도하고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,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식재료 취급상태, 냉장·냉동 시설 및 숙박업소의 제출은 도민의 자주권을 심각하 침구류 청결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방침.

시 관계자는 "식당 이용 시 일 반 손님들과 전지훈련단의 동선 을 구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병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안내하 고 이행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"이라고 첨언. 백금탁기자

#### 행정소송 급증, 행정력·혈세 낭비 막아야

도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 정소송이 날로 늘며 역대 최고 치다.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 때문에 큰 우려다. 도가 행정 전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고 민해야 할 상황이다.

제주지방법원 집계 결과 행정 소송은 2014년 100건을 넘긴 이 후 2018년 192건, 2019년 236건, 로도 257건을 기록, 사상 최고치 해야 할 판이다. 였다. 대부분 행정소송은 건축 해 제기되고 있다. 도민이나 법 인들이 행정처분에 반발, 소송 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높아진 의식 탓이다. 인터넷을 통해 간 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 상 등에 더 노력해야 한다.

자소송제 도입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.

행정소송 '남발'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. 행정소송은 결과적으로 원고·피고의 경제 적·정신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행정력과 소송비용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. 실제 제주도가 패소 한 '(렌터카) 차량 운행제한 공 고처분 취소 청구소송'과 '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 소 소송'의 경우 렌터카 업체들 2020년 234건으로 급증세를 보 이나 녹지그룹으로부터 당할 상 였다. 특히 작년엔 11월 기준으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걱정

도가 행정소송을 줄이는데 최 허가·취소, 토지수용, 원상회복 선을 다해야 한다. 행정기관이 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 시민들 '불복'을 최소화하려면 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여야 한 다. 그럴려면 행정처분 이전 법 률 검토와 도민 중심의 행정행 위 철저,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

# 卫

강경문 아버지 진주강공 희선(前 **축협 상무·향년 74세)**께서 서기 2022년 1월 17일 16시 58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.

- ▶일 포: 2022년 1월 19일(수요일) ▶ 발인일시: 2022년 1월 20일(목요일) 오전 7시 30분
- ▶ 발인장소: 부민장례식장 6빈소
- ▶장 지: 양지공원
- 부 인 김 수 열
- 아 들강경문 며느리 강성순
- 딸 강현정 사위모민호
- ※ 연락처: 강경문 010-5858-7938 김수열 010-6789-6603







# 🤶 제주도정소식 🧱

'22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(납부기간: '22. 1. 16. ~ 2. 3.) ◈ 납부 :금융기관, ATM(가상계좌이체, 카드결재), ARS(☎1899-0341) 등

- 4·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
- 지급대상 : 4·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
- 보상금액 - 사망자·행방불명인 : 9천만원
-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
- 청구대상: 희생자 본인 또는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(희생자 사망또 는 행방불명시)
- 청구시기: 2022년 하반기(예정)
- 문의: 제주120만덕콜센터(☎120), 제주특별자치도 4·3지원과 (**☎**064-710-8433~7
- 4·3희생자증 및 유족증 온라인 발급 안내
- 발급대상: 4·3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
- 신청기간 : 수시(연중)
- 신청방법: 도청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내 4·3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
- 혜택내용: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,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요금 감면 등

#### 4·3종합정보시스템 개설

- 4·3희생자증 및 유족증 온라인 신청 가능 - 4·3희생자 및 유족결정 내용 확인,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
- 기 간: 연중
- 접속방법 : 도청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내 4·3종합정보시스템
- 문의: 제주120만덕콜센터(☎120), 제주특별자치도 4·3지원

#### 2022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안내

○ 신청기간: 2022. 1. 14.(금) 09:00 ~ 2. 15.(화) 18:00 ○ 신청대상: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※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.

- 신청방법: 도청 성평등정책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제주도청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-「고시·공고」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
- 지원내용: 2천만원(개소당 1천만원)
- 문 의: 064)710-6553,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**(2064-710-8433~7)**

####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 및 사회초년생 전세, 연·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

- 1.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후유장애인·수형인 :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등급·구금일수 지원대상 : 주택전세지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
  - \*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·자녀출생일이 7년이내
  - 지원내용 :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10만원)
  - \* 다자녀(2자녀 이상) 가구,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%(최대 150만원)
  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신청기간: 2022. 1월 14일 ~ 2월 25일
  - 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(☎710-2694) 제주시 주택과(☎728-3072), 서귀포시 건축과(☎760-3013)
  -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. 사회초년생 등 주택연·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  - 지원대상 -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및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-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
  - 부동산 임대차계약(연단위)을 체결한 도민 ○ 지원내용 : 연·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
  - \* 대출한도 연 최대 600만원(최대 2년간 1,200만원)
  - 신청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
  - 문 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(☎710-2695)
  - (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〉 도정소식 〉 입법·고시·공고)